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우리도 함께 뛴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

"몸·마음 건강하게 단련할 기회"

엠마우스집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족들 "우리도 당당한 사회구성원 화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줄 것"

엠마우스집 식구들과 직원들은 올해도 새해 희망을 걸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 사진은 지난해 마라톤 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엠마우스집 제공〉

"식구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릴 겁니다. 느리긴 하지만 완주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엠마우스집(원장 정정자) 장애인과 가족, 직원 40명은 이번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완성과 공동체 의식 실현에 다시 나선다.

성인 지적장애인이 그룹홈 형식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엠마우스집의 도전은 '사회 통합'이라는 신념으로 시작된 이래 두 번째 이어지고 있다.

엠마우스집은 2010년부터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소규모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주택(30명 정원 : 광주시 북구 소재 아파트 8채)을 마련해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 강인서(여·32)씨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가 좋아 참가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다시 참가하게 됐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뛰는 만큼 하나의 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식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를 '식구'라고 표현하는 이들은 두 번째 참가인 만큼 서로의 상태를 보완하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낮 시간에는 일반 직장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오후 늦게 귀가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대회를 앞두고 매일 꾸준하게 훈련하니 체력 단련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함께 완주를 목표로 하는 식구들의 각오 또한 대단하다.

2012년부터 FC엔젤 축구팀으로 활약하고 있어 체력은 문제 없다는 감경호(20)씨는 "참가한 김에 1등을 거머쥐겠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엠마우스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박제성(35)씨 "새해를 맞아 참가하는 첫 대회인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코스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희(여·33)씨 역시 "비록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충분하다"며 "최선을 다하는 화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참여를 이끈 나선용 국장은 "광주시민으로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매년 행사 때마다 참가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단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LL-IP 세상을 향해 뛰겠소!"

〈유무선 통신망 통합〉

KT 호남 네트워크운용단

'KT 통신의 119' 자부심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KT 호남 네트워크운용단 '올레(olleh) 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004년 결성해 올해로 9년째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KT 호남 네트워크운용단 '올레(olleh) 마라톤 클럽' 회원들은 "2013년의 시작을 광주일보 마라톤으로 화려하게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계사년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통신시장에서 실내 유무선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ALL-IP' 광고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강조한 KT의 정신은 '올레'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20여 명의 회원은 기록 경신과 더불어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호남네트워크운용단 박형필(47) 매니저는 "다른 경기는 상대방과의 경쟁을 해야 하지만,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한다"며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가도 골인 지점을 통과할 때 느끼는 희열은 1등으로 들어온 것 못지 않다"고 마라톤의 매력을 설명했다.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이지만, 마라톤을 향한 이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하프 코스를 뛸 때마다 시간을 기록한다는 김구현(52) 마스터는 "오래 쉰 탓에 몸이 예전같지 않지만 대회를 준비하며 매주 10㎞씩 너릿재 고개와 월드컵 경기장 등을 돌고 있다"며 "이번에는 1시간 50분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들에게 마라톤은 건강과 함께 가족의 행복을 선물해 준 고마운 운동이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처럼 평일에 대회가 열릴 때면 회원 가족이 모두 함께 대회장으로 '소풍'을 나온다. 박 매니저는 "지난해 대회 때는 딸이 '아빠 화이팅'이란 문구를 적어 응원을 해줬다"며 "가족간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추억했다.

지난해 부임한 이철규(53) 호남네트워크운용단장은 '올레' 팀의 든든한 후원자다. GWP(Great Work Place) 캠페인을 통해 취미와 특기를 함께하는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KT 호남네트워크운용단은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지역까지 휴대전화·케이블·인터넷 등 유·무선망을 통합 관리하고 통신망 시설을 제어하는 등 'KT 통신의 119'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KIA 선동열 감독과 한화 김응용 감독이 24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자 선동열, 스승 김응용에 '무릎'

KIA 안치홍 홈런포 선취점…불펜 난조로 한화에 2-3 패배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멋있게 보여줘야지."

한화 김응용 감독과 제자 선동열 감독이 24일 사제지간의 맞대결을 벌였다. 결과는 스승의 승리. KIA가 4회 터진 안치홍의 솔로홈런으로 선취점을 기록했지만 불펜의 난조로 2-3 역전패를 기록했다.

이날 오키나와 킨 구장을 찾은 취재진의 관심은 선수들이 아닌 양팀 사령탑에 쏠렸다. KIA와 한화의 연습경기가 열리면서 선동열 감독과 김응용 감독간에 첫 대결을 벌이는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선 감독이 스승을 찾아 인사를 하긴 했지만 사령탑으로서는 첫 만남. 선 감독은 김 감독이 경기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리 정문까지 달려나가 스승을 맞았다.

김 감독의 얼굴에는 상대팀 사령탑으로 재회하게 된 제자에 대한 반가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제자와의 대결 소감에 대해 김 감독은 "멋있게 보여줘야지"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명장과 국보급 투수로 삼성 감독과 수석코치 그리고 사장과 감독으로 프로야구 역사를 만들었던 두 거물이자 사제지간의 맞대결 결과는 스승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 초반은 KIA의 신예 임준섭과 한화 선발 후보 김광수의 팽팽한 힘겨루기였다. 양 감독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두 선수는 선발로 등판해 나란히 탈삼진 두 개씩을 뽑아내며 3이닝 무실점 피칭을 보였지만 불펜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선취점은 KIA가 기록했다. 안치홍이 4회 1사에서 한화의 바뀐 투수 김일엽을 상대로 중앙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기록하며 균형을 깼다. 하지만 임준섭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KIA의 신인 투수 이효상이 흔들렸다.

4회 2사 만루의 위기를 실점없이 넘겼던 이효상이 5회 오선진·한상훈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했다. 무사 1·2루에서 연속해서 몸에 맞는 볼과 볼넷을 허용하는 등 제구가 흔들리며 경기는 1-3으로 역전됐다.

KIA가 8회 1사에서 나온 홍재호의 2루타로 1점을 추격했지만 추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경기는 2-3 역전패로 끝났다.

패로 경기가 끝나기는 했지만 선 감독의 불펜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서 불펜 기대주로 떠오른 좌완 임준섭이 변화 무쌍한 공을 선보였고, 신인 우완 고영창과 좌완 손동욱은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마무리 수업을 받고 있는 앤서니도 탈삼진 2개를 추가하며 9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아냈다.

KIA 안치홍이 24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4회 솔로 홈런을 친 뒤 김평호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편 사제지간의 맞대결이 펼쳐졌던 킨 구장에서는 25일 선후배 맞대결이 전개된다. 넥센 사령탑으로 첫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일고 출신의 염경엽 감독이 킨 구장을 찾아 선배 선동열 감독과 맞대결을 벌인다.

/wool@kwangju.co.kr

오키나와에 '타이글스' 사랑방

타이거즈 출신 지도자들 대거 모여 이야기꽃

오키나와 킨 구장에 '타이글스' 사랑방이 열렸다.

KIA는 지난 22일 주니치를 끝으로 일본팀과의 맞대결을 끝냈다. 24일부터 시작된 한국 팀과의 맞대결. 처음으로 만난 팀은 인연 많은 한화였다.

2013시즌을 앞두고 한화에는 타이거즈 출신 지도자들이 대거 둥지를 틀었다. 김응용 감독을 시작으로 김성한 수석코치, 김종모 타격코치, 이종범 주루코치, 이대진 투수 코치가 사단을 꾸렸다. 여기에 KIA 투수 코치로 뛰었던 칸베, 신용균 코치도 인스트럭터로 한화 캠프에 함께 하고 있다.

한화발 이동도 있었다. 김용달 타격 코치가 KIA 코치로 변신했고, 하나마 트레이너 코치도 KIA 선수들의 몸을 책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야구팬들 사이에는 타이거즈와 이글스를 합한 '타이글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한국팀과의 대결도 대결이고 인연 많은 팀이 만나면서 곳곳에는 사랑방이 열렸다.

가장 먼저 KIA 덕아웃에 이야기꽃이 피었다. KIA 선동열 감독과 한화 김성한 수석코치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코치로 변신한 이종범도 덕아웃을 찾아 선 감독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한동안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삼삼오오 자리를 한 이들의 사랑방은 경기 중에도 계속됐다. 경기조가 아닌 투수들은 관중석에 앉아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투수 양현종도 칸베 코치를 찾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또 따끔한 충고를 들었다. 칸베 코치는 "지난 2년의 부진에 대해 핑계대지 마라. 올 시즌 최선을 다해서 실력으로 보여주라"며 애제자의 선전을 당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525-4835 | 송정역 941-3278

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
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
여행비 68,000원
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특전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셋트 증정(15,000원 상당)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
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
여행비 37,000원
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황산공원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